

본 작품들의 열람기록은 로그파일로 남게 됩니다. 단순 열람 목적 외에 작가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의 허락없이 이용하거나 무단 전재,복제, 배포 시 저작권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歸路: 돌아오는 길>

#1 2015년 7월 15일 광화문 전광판

프랑스에서 그 동안의 일을 사과하며 직지를 한국으로 반환하겠다고 하는 기자회견이 뉴스에 나온다. 유리관에 쌓여있는 직지의 아름답고 빛나는 모습을 클로즈업 되면서 고려시대로 넘어간다.

#2 1372년 성불산 성불사

오늘도 다름없이 수련을 하고 있는 백운화상. 제자 석찬, 달잡은 항상 이러한 스승의 태도가 불만이다. 스승으로 모시고 있지만 스승은 언제나 자기 수련에만 힘쓰고 제자인 자신들에게 단 한 번도 가르침을 준 적이 없다. 벌써 십여 년째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상태이다. 더군다나 요즘엔 법당 안에 들어가면 식사까지 거르고 무언가에 열중한다. 석찬과 달잡은 이러한 스승의 모습에 한편으론 걱정하면서 답답함을 토로하며 심지어 이러한 스승아래에서 더 배울 것이 있을 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불만이 고조되던 때 백운화상은 석찬과 달잡, 두 제자를 부른다. 생전 법당 안으로 들을 부른 적 없는 스승이기에 석찬과 달잡은 그러한 스승의 태도가 낯설기만 하다. 법당 안에 자리 잡은 백운화상 석찬, 달잡. 백운화상은 두 제자에게 “직지인심(直指人心) 견성성불(見性成佛) 일지어다.” 라고 말하며 법당에서 참선하며 정리한 <직지>를 건네준다. 두 제자는 이러한 스승의 가르침에 죄책감을 느끼며 백운화상을 평생 스승으로 모시기로 다짐한다.

#3 1374년 여주 취암사 가는 길

성찬과 달잡의 불법의 덕이 <직지>로 인해 높아지던 때, 취암사로 떠날 준비를 하라는 백운화상. 두 제자는 스승의 갑작스런 부름에 놀라지만 이내 수긍하고 취암사로 떠날 채비를 한다.

취암사로 가는 길. 백운화상은 두 제자에게 자신의 스승인 석옥 선사와 지공화상

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를 회상하며 이야기를 해준다. 중국에서 모래 바람에 쓸려 죽을 뻔한 이야기와 듣도 보도 못한 인도의 신비한 모습에 대해 이야기 해주는 스승의 모습은 평소 과묵하고 차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이내 그 이야기들이 2년 전에 자신들에게 건네 준 <직지>와 일맥상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4 1374년 여주 취암사

취암사에 도착하자마자 백운화상의 건강은 급격하게 나빠지게 된다. 두 제자는 스승을 성심 성의껏 모시고자 하지만 백운화상은 그러한 제자들의 도움을 모두 거절한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제자를 자신의 방으로 부른 백운화상. 그는 제자들에게 “곧바로 가르쳐 주고 정확하게 깨닫도록 한다.”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묻는다. 갑작스런 스승의 질문에 당황하지만 이내 스승의 뜻을 이해하고 “자신의 내면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해탈의 경지로 간다는 것이다.”라고 대답한다. 백운화상은 이내 기뻐하며 “<직지>의 가르침이 곧 그것이니라.”라는 말을 남기며 그 자리에서 입적한다.

#5 1374년 청주 홍덕사

스승을 보내고 청주 홍덕사로 오게 된 석찬과 달잠. 스승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새긴다. 그들은 스승의 가르침인 <직지>가 자신들 뿐만 아닌 많은 불도들에게도 전파되기를 희망하며 그 내용을 목판화 하는 작업을 실행 시키고자 한다. 하지만 평소 백운화상의 덕을 흠모하던 비구니 ‘묘덕’은 둘에게 목판대신 금속활자로 만들 것을 제안한다. 석찬과 달잠은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목판화 작업을 진행시킨다. 그러나 목판화 작업에 앞서 스승의 뜻을 기리고자 수련을 하던 석찬의 앞이 하늘하늘한 연기로 뒤덮이고 스승 백운화상이 나타나 '나의 뜻이 목판화 작업에 밖에 못 미치느냐'며 꾸짖는다. 스승의 꾸짖음에 깜짝 놀라 깨어난 석찬은 달잠에게로 곧장 가서 꿈 얘기를 해주고 <직지>의 금속활자화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 둘은 <직지>가 금속활자로 만들어진다면 정신문화로서의 불교의 위치와 확보되고 원나라의 오랜 지배에 의해 약해진 민족의 정서를 고취시킬 수 있을 것이라 결정을 내리고 묘덕을 찾는다.

묘덕을 찾아간 석찬과 달잠은 묘덕에게 석찬의 꿈 이야기를 해주고 자신들의 <직지> 금속 활자화 의지를 밝힌다. 묘덕은 크게 기뻐하며 금속 활자화하는 모든 비용과 기술공들을 모집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힌다. 이와 동시에 묘덕은 평소 백운화상의 덕을 흠모해왔으며 자신은 백운화상의 <직지>를 접하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다며 호감을 표했다.

홍덕사에는 <직지>의 금속화를 위한 공간이 한 쪽에 마련되었다. 그 곳에는 성찬과 달잠, 묘덕의 감독 하에 여러 기술공들이 모여 작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금속활자 화는 쉽지 않았다. 당시에는 철의 생산과 유통을 허가하는 통제기관이 따로 존재 했기에 주요 재료인 철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고 금속을 합하여 활자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부족했다. 그렇게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며 3년의 시간이 흐른다.

#6 1377년 청주 홍덕사

비구니 묘덕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었다.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어느 남성보다 당찬 포부를 가지고 있었으며 호기심이 많고 그 호기심에 비례하여 재주 또한 뛰어났다. 묘덕은 삼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사용한 많은 양의 철과 기술공들의 품삯을 시주 해왔다. 성찬과 달잠은 묘덕이 시주하는 많은 양의 철과 품삯의 출처가 궁금해 물어볼 때면 묘덕은 그저 웃을 뿐이었다.

여느 날과 같이 성찬과 달잠은 오늘도 역시 일어나자마자 <직지> 금속 활자화하는 곳으로 향한다. 묘덕은 도착한 둘을 보고 다른 날 보다 더 활짝 웃으며 둘을 반긴다. 묘덕은 옆에 있는 기술공에게 귓속말로 부탁을 하고 기술공은 썩웃으며 자신의 볼 일을 보러간다. 기술공이 자리를 떠난 후 남은 셋은 3년 동안의 주조 과정을 기억하면서 웃고 떠드는데 그러던 중 자리를 떠났던 기술공이 찾아온다. 그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는데 묘덕이 눈신호를 보내자 책 한권을 성찬과 달잠의 눈앞에 내 놓는다. 그 책의 표지에는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라 써 있었다.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던 성찬과 달잠은 마침내 그것이 활자 인쇄본 직지라는 것을 눈치 채고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

감동에 겨워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하던 성찬은 묘덕에게 다가가 “묘덕 비구니 덕입니다. 이제야 꿈에서라도 스승님의 얼굴을 맘 놓고 뵈 수 있게 되었어요.” 묘덕은 이러한 성찬과 달잠을 보며 그저 흐뭇한 미소를 지을 뿐이었다.

#7 1592년 임진왜란 중 조선시대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켜 조선을 파죽지세로 점령하게 되고 마을을 약탈하고 조선의 훌륭한 문화재를 약탈해간다. 그 중에는 <직지>를 강탈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8 충주에 도착해서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고니시 진영

임진왜란이 발발하고 당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제1선봉장으로 참가했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는 부산과 대구를 거쳐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진격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고니시는 자신이 조선에서 이론 전공 외에도 그동안 관심을 갖고있던 조선의 도자기와 서적들을 약탈할 생각에 들떠 있었다. 일본에서 고니시를 따라 종군해온 승려 겐소(玄蘇) 또한 고니시의 약탈물 중 일부가 자신에게도 주어질 것이라는 생각하며 고니시의 옆에서 그의 비유를 맞춰주고 있었다. 고니시의 부대가 이 일을 상주에서 패퇴시키고 충주에 도착하자 겐소는 자신의 스승에게서 들은 청주에 고려시대에 금속활자로 만들어진 불경이 보관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떠올랐다. 자신이 그것을 찾으러 직접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겐소는 고니시에게 금속 활자본 불경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로 마음먹는다. 마침 고니시의 부대가 충주 탄금대에서 신립이 이끄는 조선의 정예 병력들을 물리치자 겐소는 고니시에게 직지의 존재에 대해 고니시에게 말한다. 연이은 승리에 도취되어 있던 고니시 유키나가는 겐소에게서 조선에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尚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이라는 고려시대에 금속활자로 만들어진 불경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자 흥미와 함께 그동안 전쟁 때문에 잊고 있었던 탐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된다. 이미 충주 전투에서 조선의 정예 병력들을 제압한 고니시는 한양으로 향하던 길에 더 이상의 장애물은 없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충직한 가신인 다나카(田中)를 부른다.

#9 고니시의 막사

다나카가 자신의 막사에 들어오자 고니시는 다나카에게 자신이 정예 병력을 내어 줄테니 청주에 가서 <직지>를 찾아오라고 명령한다. 학문과는 거리가 멀었던 다나카는 고작 책 한권을 가져오는데 자신을 부른 것에 대해 불만을 갖지만, 이내 주군인 고니시의 명을 받들어 청주를 향해 떠난다.

다나카가 청주를 향해 떠난 후 고니시는 다나카가 못 미더웠지만, 서둘러 한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10 청주로 향하는 다나카 부대

고니시 유키나가의 명을 받은 다나카는 천 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청주로 향한다. 충청도의 조선군 대부분은 고니시와 신립의 탄금대 전투에서 전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주에서 청주까지의 진격로는 무인지경이나 마찬가지였던 상황이었다.

#11 청주성

왜군이 청주를 향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윤경식은 성안에 남아있는 모든 병졸들을 모아 방비를 하고 있다. 충주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에 청주목사는 이미 자신의 가족들과 대부분의 병사들을 이끌고 도망 쳤기 때문에 윤경식이 거느리고 있는 오백여명의 병력이 전부였다. 청주성에 도착한 다나카는 성을 지키고 있는 윤경식의

부대가 소수인 것을 보고 코웃음을 치며 공격을 명령한다.

물밀듯이 밀려오는 왜군들을 보며 윤경식은 자신이 이번 싸움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할 것을 느낀다. 그러다 문득 집안의 가보인 <직지>를 떠올리게 된다. <직지>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윤경식은 옆에서 왜군과 싸울 준비를 하고 있던 자신의 아들을 불러 지금 당장 집으로 가서 <직지>를 안전한 곳으로 숨기라고 말한다. 윤경식의 아들 윤현성은 전장에 자신의 아버지를 남기고 떠나는 것이 불안했지만, 윤경식의 완강한 태도에 집으로 향한다.

#12 청주성 밖

주변을 경계하며 직지를 품에 안고 달려가고 있는 윤현성의 모습.

우암산 초입에 다다랐을 때 한 무리의 왜군을 만난다. 재빨리 몸을 숨긴 윤현성은 왜군이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뱀에 놀라 왜군에게 발각되고 만다. 전력을 다해 도망치는 윤현성을 보고 왜군 중 일부가 그를 쫓는다. 한참을 달리던 윤현성은 쫓아오는 왜군이 몇 되지 않는 것을 보고 뒤돌아서 싸울 태세를 갖춘다. 왜군들은 혼자인 윤현성을 보고 비웃으며 공격을 시작한다. 치열한 싸움 끝에 결국 윤현성이 왜군을 물리치지만 그의 몸과 직지는 만신창이가 되었다.

너덜너덜해진 직지를 보며 한숨을 쉬며 가던 길을 재촉한다.

#13 청주 성내 윤경식의 집

집으로 돌아온 윤현성은 <직지>를 품에 안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간다. 자초지정을 들은 어머니는 윤현성에게 우암산 기슭에 있는 암자로 가라고 말해 준다.

#14 윤경식의 죽음

다나카의 대병력을 맞아 윤경식과 병졸들은 고군분투하고 있다. 성루 위에서 싸움을 지휘하고 있는 윤경식의 몸에는 이미 여기저기에 상처가 나왔다.

한편, 멀리서 싸움을 지켜보고 있던 다나카는 조선군이 생각보다 완강하게 저항하자 고민에 빠지기 시작한다. 항상 패퇴하는 조선군만을 생각하고 포병은커녕 조총병들도 충분히 데려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조선군이 이 사실을 알 리 없었지만 스스로 조급해진 다나카는 철수를 결심하고 철군의 나팔을 불게 한다.

맹렬한 공격을 퍼붓던 왜군이 갑자기 후퇴하기 시작하자 윤경식은 성벽으로 내려가 병사들을 독려한다. 병사들을 독려하던 윤경식이 어디선가 날아온 총탄을 맞고 쓰러지고 만다.

#15 우암산 암자

산속을 헤매고 있는 윤현성은 겨우 암자를 발견하고 다가간다. 만신창이가 되어 암자에 도착한 윤현성은 그곳에 머물고 있는 노승을 만나 자신이 가져온 <직지>에 대한 내력을 알려준다. 윤현성의 자초지정을 들은 노승은 <직지>를 잘 보관할 것을 약속하고 윤현성은 노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성치 않은 몸을 이끌고 싸움터로 향한다.

#16 침통한 청주성

왜군에게서 청주성을 지켜냈지만 웬지 모를 침울함이 감도는 청주성. 막 도착한 윤현성은 고개를 떨어뜨리고 있는 병졸 하나를 잡고 자초지정을 묻는다. 윤현성의 얼굴을 본 병졸은 이내 눈물을 흘리며 윤경식의 전사 소식을 전한다. 차갑게 식어 있는 아버지를 안고 대성통곡 한다.

#17 우암산 암자 안에 있는 <직지>

윤현성은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그 유골을 우암산에 안치하기로 하고 우암산로 간다. 우암산 암자에 있는 <직지>를 보고 다시 한 번 눈물을 흘린다. 밝게 빛나는 <직지>의 모습을 클로즈업 하면서 조선말 청주로 넘어간다.

#18 청주 무심천 일대

주한 프랑스 공사인 콜랑 드 플랑시는 동양 고서적에 대한 관심이 많다. 어느 날 프랑스 공사 직원 몇 명과 청주로 나들이를 떠나게 된다. 일행 중에는 청심이라는 청주 출신이 있는데 맑게 흐르는 무심천 앞에서 그녀로 부터 청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된다. 역사와 자연이 어우러진 청주를 둘러보며 플랑시는 감탄을 멈추지 못한다.

그러다 청심이가 플랑시의 귀를 번쩍 뜨이게 하는 고문서에 대한 언급을 한다. 이곳 청주에는 원래 흥덕사라는 절이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소멸되었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그 곳에서 금속활자를 이용해 제작 된 <직지>라는 책이 존재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내용은 자신도 소문으로만 듣게 되어서 잘은 모르겠다며 얼버무린다. 플랑시가 눈이 크게 뜨여 금속활자본이라고 했냐며 다시 되묻자, 청심이는 왜 그러느냐는 듯이 쳐다본다. 플랑시가 그것이 만들어 진 연도에 대해 묻자 청심이는 못해도 5-600년은 넘은 이야기라고 답한다.

<직지>라는 금속 활자본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플랑시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얘기도 들리지 않는다. 온통 <직지>에 대한 생각이 가득할 뿐이다. 5-600년 전 이야기라 하면 구텐베르크 활자본을 뛰어넘을 수도 있는 책이 아니던가. 플랑시는 어떻게

해서든 그 책을 손에 넣고 말리라고 생각한다.

#19 콜랑 드 플랑시의 집무실

플랑시는 한양으로 돌아와 직지의 소재지를 수소문하기 시작한다. 조선에서 많은 유물을 수집하고 있다는 사람을 비롯하여 세책가등 여러 곳을 수소문 해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얘기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플랑시의 수행비서가 조선의 귀하지만 볼 수 없는 많은 유물들은 골동품 가게를 통한다면 무엇이든 구할 수 있을 것이라 귀뜸한다.

#20 한양 저잣거리

수행비서의 이야기를 들은 플랑시는 저잣거리를 돌아다니며 골동품 가게를 수소문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비교적 규모가 큰 골동품 가게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오게 된다. <한성상회>. 플랑시는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에 이끌려 한성상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21 한성상회

플랑시는 한성상회 안에 있는 조선의 진귀한 유물들을 보며 눈을 떼지 못한다. 주인 없는 가게 안을 구석구석 살펴보던 플랑시. 가게 안을 빼곡하게 채우고 있는 많은 유물들은 보기만 해도 그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한참을 구경하다 보니 한성상회의 사장 황한성이라며 플랑시에게 인사를 건네지만 유물에 정신이 팔린 플랑시는 골동품가게 사장에게 눈길조차 줄 생각이 없었다. 한성상회는 다른 골동품의 가게와는 차원이 달랐다. 전에 갔던 골동품가게들에 비해 유물의 종류도 많았고, 평소 보기 힘든 희귀한 유물들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다. 또한 사장 황한성의 모습은 그냥 작은 가게의 주인의 모습이 아니라 야심만만한 사업가의 이미지를 풍겼다. 이를 보면서 <직지>를 찾아 달라고 부탁 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곧 <직지>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을 주었다.

플랑시는 황한성에게 자신이 주한 프랑스 공사임을 밝히고 현재 금속 활자본 <직지>를 찾고 있다고 말한다. 황한성은 그 유물은 자신도 듣기만 했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고 하며 공사관계서 찾으시니 특별히 노력해보겠다고 한다.

#22 한성상회 안 황한성의 사무실

플랑시가 다녀간 후 황한성은 사무실로 들어와 평소에는 잘 열어 보지 않는 금고를 연다. 이 금고에는 황한성이 가장 아끼는 유물들만 모아 놓은 황사장의 보물 1

호이다. 금고를 열어 조심스레 금속 활자본 <직지>를 꺼내 긴 생각에 빠진다.

#23 3년 전 회상 우암산

황한성은 어릴 적부터 유물에 관심이 많았다. 이는 그의 아버지의 영향도 컸다. 오래된 물건이라면 요강조차 사다 수집하던 아버지를 보고 자란 탓일까. 아버지만큼은 아니지만 그도 오래된 물건이라면 일단 관심을 갖고 살펴보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암산에 아주 귀한 물건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된 황한성은 그 즉시 우암산을 찾게 된다. 무턱대고 떠난 길이었기에 그의 여정을 험난했다. 날이 저물고 날씨가 추워지자 잘 곳을 찾던 중 산 속에 작은 암자를 발견하게 된다. 하룻밤 신세를 지겠다고 부탁을 하고 짐을 푼다. 황한성이 암자의 스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스님이 어떤 일로 이 깊은 산속까지 오게 되었는지 물어본다. 황한성은 이 스님이 자신이 찾고 있는 귀한 물건에 대해 알고 있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 스님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황한성은 자신은 그저 팔도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인데 우연히 우암산에 귀한 물건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스님에게 혹시 귀한 물건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어본다. 황한성의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자신이 스승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떠올리며 이 암자에 유서 깊은 서책이 보관되어 있는데 자신도 그것을 직접 본적은 없다고 자랑스럽게 말한다. 황한성은 이 젊은 스님이 말하는 그 유서 깊은 서책이 바로 자신이 찾고 있는 귀한 물건이라는 것은 직감하며 눈빛이 번뜩인다.

#24 우암산 암자(깊은 밤) - 회상 부분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불당 안을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가 보인다. 달빛에 얼굴이 드러나는 검은 그림자. 황한성의 손에는 책 한권이 들려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불당 안을 급히 빠져나간다. 그러나 그가 지나간 자리 옆에 다른 곳에는 또 다른 책이 자리 잡고 있다. 그 책을 클로즈업 하니 <직지심체요절> 상권이라고 쓰여 있다.

#25 다음날, 우암산 암자 - 회상 부분

어제 찾아온 손님을 깨우기 위해 손님이 머무르던 방에 간 젊은 스님. 문밖에서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자 방문을 열어 보는데 이부자리가 널려진 채로 텅 비어있고 정말 이상한 손님이라고 생각하며 돌아서는 젊은 스님.

#26 한성상회 안 황한성의 사무실

황한성은 어떻게 해야 플랑시에게 좋은 조건에 <직지>를 넘길 수 있을 지를 고민한다.

#27 프랑스 공사관

플랑시를 찾아간 황한성은 자신이 플랑시가 원하는 직지를 구해 줄 수 있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어떤 이익이 돌아오는지 플랑시에게 묻는다. 황한성의 물음에 플랑시는 직지만 얻는다면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다고 대답한다. 드디어 자신이 원하던 대답을 들은 황한성은 프랑스와 무역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원한다고 대답한다. 예상치 못한 대답을 들은 플랑시는 잠시 고민하지만 <직지>에 대한 욕심으로 황한성의 요구를 수락한다.

#28 콜랑 드 플랑시의 집무실

플랑시의 손에는 직지가 들려있고 얼굴은 연신 신나는 표정이다. 수행비서가 플랑시의 표정을 읽고 드디어 원하던 것을 얻었냐고 물어오자 플랑시는 여유롭게 웅크리며 엄지손가락을 내민다. 플랑시는 다시 꼼꼼하게 <직지>를 살펴보고 있다. 그 맨 뒤에는 인쇄 시기, 장소,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78년이나 빠른 활자본이 이 작은 나라에서 존재했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따름이다. 이는 세계사의 한 부분을 바꿔 놓을 작품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중요한 것이 자신의 손에 들어왔다는 것에 대해 한 번 더 놀라고 뿌듯해한다. 그러면서 <직지>에 자신의 것이라는 표식을 새긴다.

본래 금속활자를 만드는 것은 대량생산을 위함일 터인데 <직지>는 원본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찌 보면 자신만 원본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하기도 하지만 솔직히 플랑시의 입장에서는 의아할 따름이다. 자본주의와 상업화의 시각이 자리 잡고 있는 플랑시에게 <직지>의 ‘정신문화’를 깨닫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를 통해 동양과 서양의 문화적, 시각적 차이를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29 콜랑 드 플랑시 프랑스 본가

콜랑 드 플랑시가 자신의 서재에 있는 조선의 고서들과 문화재들을 뿌듯한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다. 그 중에서 <직지>를 집어 든다. 직지를 한 장씩 펼쳐 보이며 <직지>를 구하던 그 당시를 회상한다. 아...얼마나 구하기 힘들던 희귀한 문서이던가. 이 때 노크 소리가 들린다. 푹푹. 콜랑의 후배이자 동료인 모리스 쿠랑이 들어온다. 쿠랑이 직지를 들고 있는 플랑시를 보면서 그리도 좋으냐? 묻는다. 플랑시가 웃으며 테이블에 앉아 쿠랑과 함께 계속해서 서지 작업을 시작한다. 불경, 시조, 소설 등 조선에서 가져 온 고문서들의 목록이 펼쳐져 있다. 서지 작업을 하던 쿠랑이

그 작은 나라에서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몇 십 년 빨리 활자본이 제작된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새삼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어떻게 이런 것을 구했냐하면서 참으로 대단한 것을 건졌다고 말한다. 플랑시가 미소 지으며 이에 동의한다. 그러면서 책의 값어치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쿠랑이 음흉한 웃음을 띠며 역시 자본주의의 세계에서 동양의 뛰어난 정신문화역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고 이야기 한다. 플랑시는 이에 대해 어쩔 수 없다는 표정을 짓는다.

#30 프랑스 옥션 장

동서를 막론한 여러 고귀한 물품들이 옥션에 오르고 있다. 그 가운데 플랑시의 모습이 보인다. 드디어 플랑시가 내세우는 <직지>가 출품된다. 사람들은 저게 뭔가 하며 궁금해 한다. 그러다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앞선 작품임을 알고 너도나도 경매에 열을 올린다. 계속해서 치솟는 가격을 보면서 플랑시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그러다 누군가 180프랑을 외치고 직지의 경매는 끝이 난다. <직지>를 구매한 사람은 기쁜 표정으로 직지를 손에 넣고 그 곳을 빠져나온다. 플랑시 역시 결과에 만족하고 자리를 뜬다.

#31 30년 후 앙리 베베르의 비밀서재

앙리 베베르의 비밀 서재에는 여러 나라의 보물들이 가득하다. <직지>도 그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여러 해에 걸쳐 많은 보물들을 손에 넣었지만 <직지>는 웬지 혼자 가지고 있기에는 너무 아까운 작품이다. 많은 걸작들을 보아왔지만 <직지>는 뭔가 다른 아우라가 있는 것만 같다. 여태껏 자신이 생각해오던 동양의 정신과 그 신비로움과 제일 일치하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 <직지>를 살펴보며 그 참된 의미를 파악하고자 노력해왔다. 그 결과 <직지>란 ‘곧바로 가르쳐 주고 정확하게 깨닫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앙리 베베르는 직지를 넣은 순간부터 계속 고민을 해왔다. 그 고민 끝에 결국은 혼자만두고 볼 작품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결국 이를 기증하기로 마음먹는다.

#32 1972년 프랑스 파리 ‘책의 역사’ 전시회

플랑시에게서 앙리 베베르에게로 그리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머무르게 된 <직지>는 1972년 파리 ‘책의 역사’ 전시회를 통해 다시 한 번 세상에 드러나게 된다. 전시회를 찾아 온 사람들은 모두 구텐베르크 성경보다 동양에서 온 이 책이 훨씬 앞섰다는 것을 알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한마디씩 한다. 이 전시회를 통해 <직지>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받게 된다.

#33 2001년 대한민국 광화문

<직지>가 유네스코 세계 기록 문화유산에 등재 된다는 뉴스가 나온다. 몇몇 사람들은 전광판을 보며 크게 반응하고 이곳에 없다는 것에 안타까워한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한번 보고 큰 반응 없이 지나친다.

#34 2005년 7월 23일 대한민국 청주. 청주고 교실

수능 준비를 위한 여름 방학 특강이 학교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도훈은 수업시간에 자고 있다. 반 친구인 소희는 도훈을 깨워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잔소리를 하고 좋은 머리를 썩이고 있는 도훈을 보며 안타까워한다.

소희를 남몰래 짝사랑하고 있던 도훈은 겉으로는 소희에게 막 대하지만 남몰래 도움을 주면서 속으로는 좋아하고 있었다.

#35 여름방학 어느 날 학교 앞

수업을 마치고 돌아가는 소희에게 한 남학생이 좋아한다고 고백하지만 소희는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며 거절을 하지만 계속 쫓아온다. 도훈은 그 모습을 보고 화가나 남학생을 때려눕힌다. 그 모습을 본 소희는 도훈에게 짝패 같다며 말하고 다시는 보지말자고 말한다. 도훈역시 널 위해 한일인데 화를 내냐며 나도 다신 안본다고 소리치고 짝패 같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집으로 돌아간다.

#36 도훈의 집

도훈은 소희가 한말에 신경을 쓰며 자신이 심하게 말했는지 생각에 잠긴다. 하지만 짝패 같다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아 자신은 잘 못이 없으니 다시는 안 볼 것이라 생각하지만 잠을 이루지 못한다.

#37 2005년 11월 8일 수능 능력 시험장

시간은 흘러 수능 보는 날짜가 다가오고 도훈은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시험에 응한다. 도훈과 소희는 수능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만나지만 도훈은 무시한 채 돌아가지만 소희는 이야기 좀 하자고 붙잡는다. 소희는 천재 같은 너의 모습을 부러웠으면서 가끔은 질투도 나지만 사실은 좋아 한다며 쑥스러운 고백을 한다. 도훈 역시도 처음에는 쑥스러운 마음에 거절하지만 결국에는 소희를 안으며 그동안의 사랑 고백을 한다. 소희는 도훈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같은 대학 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38 12월 청주 시내

소희와 도훈은 연인이 되어 꿈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깊이 사랑한다. 그러던 중 소희는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에 합격소식을 듣게 되고 도훈은 축하를 하지만 대학에 모두 낙방한다. 그제야 도훈은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들어오고 재수를하기로 결심한다.

#39 3월 청주 학원

그 후 도훈과 소희는 아쉬운 이별을 하고 도훈은 공부에 매진한다. 소희는 일부러 공부에 방해되기 싫어 도훈과 연락을 끊는다. 도훈은 그 마음을 모르고 서운해 한다.

#40 4월 서울대학교

대학을 다니던 중 소희는 고향인 청주의 <직지>에 관한 관심을 더 두게 된다. 대학 내에서 직지에 관련된 스터디와 공모전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직지를 알리게 되고 공모전에 당선되어 프랑스 현지로 유학과 프랑스 내에 <직지>와 관련된 한국 부서에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41 11월 12일 도훈의 집 앞

1년이 흘러 수능날짜는 다가오고 소희는 처음으로 도훈 앞에 나타난다. 도훈은 서운한 마음과 너무 보고 싶었던 마음이 함께 공존하고 소희를 꼭 끌어안는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소희가 프랑스로 떠나야하는 사실을 알린다. 입국 날짜는 수능날인 11월 13일이지만 소희는 도훈을 안심시키기 위해 시간이 남았다는 말과 유학이 아니라 잠시 다녀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42 11월 13일 수능 고사장 앞

수능 날 소희는 도훈을 배웅하고 잘 보고오라는 말을 한다. 도훈은 소희의 배웅을 받으며 시험실에 들어가고 같이 재수를 하던 친구가 도훈에게 소희 소식 들었이라며 괜찮은지 위로를 한다. 도훈은 그제야 모든 사실을 알지만 이미 시험은 시작되고 도훈은 시험에 집중을 못한다. 2교시인 수리능력시험시간에 도훈은 갈등을 하고 다시는 소희를 보지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에 수험 실을 뛰쳐나가 공항으로 달려간다.

#43 인천국제공항

공항에 도착한 도훈은 소회를 찾아 헤메지만 이미 소회는 떠나간 후였고 도훈은 자신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떠난 소회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린다. 청주로 돌아간 도훈은 아버지께 큰 꾸지람을 듣지만 그 소리는 이미 들리지 않고 오히려 직지가 뭐 길래 나한테 이러냐며 큰 소리를 치고 집을 나간다. 도훈은 다시는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고 방황을 한다.

#44 3년 후 서울

3년 후 도훈은 방황을 한 끝에 서울까지 오게 되고 독립을 해 살아간다. 그러던 중 우연하게 해고된 한성기업의 근로자가 한성기업의 사장을 습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이때 도훈은 사장을 구하게 된다. 이후 사장의 수행비서로 들어가게 된다. 한성기업은 골동품 상점으로 시작해 프랑스와 무역과 관련되어 세계적으로 성장한 기업이다. 똑똑하던 도훈은 한성기업에 눈에 들어 점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45 2009년 청주 고 인쇄박물관 연구실

윤홍식은 여전히 <직지>를 연구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반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윤홍식은 연구를 하던 중에 한성기업이 프랑스와 연결되어 고속철도를 부설하는데 기업으로 참여하게 된다. 한성기업은 <직지>를 반환받는 조건으로 프랑스의 TGV 고속철도와 연결하여 부설했는데 이런 사실과 함께 한성기업과 프랑스가 짜고 그런 사실을 은폐한 사실을 알게 된다.

#46 기자회견장

윤홍식은 그 사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하려 하지만 한성기업의 반대로 기자회견에 기자들은 보이지 않는다. 기자회견을 반대 한 인물이 도훈 소행임을 알고 큰 실망을 하게 되고 도훈 역시도 아버지와의 만남에 당황해 한다. 윤홍식은 도훈을 보며 고향이 청주인 녀석이 <직지>를 알려하지 않고 방해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소리를 치지만 도훈은 <직지>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말하고 자리를 떠난다. 그 후 윤홍식은 계속해서 한성기업에 항의하고 약속을 지키라고 말한다.

#47 2009년 프랑스

한편 소회는 프랑스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지>의 역사성과 세계 문화유산에 얼마나 큰 영향력이 미치는지 알게 된다. 이에 더욱 열심히 연구를 하며 <직지>가 한국의 자랑스러운 유산임을 알리는데 집중한다.

#48 윤홍식의 제거 계획

한성기업은 자신들의 사업에 방해가 되는 윤홍식을 제거하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윤홍식이 도훈의 아버지임을 알고 도훈에게는 비밀로 하고 윤홍식을 제거하는 일을 계획한다. 도훈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계획의 일부분을 돕게 되고 결국 윤홍식은 살해된다.

#49 윤홍식 제거 계획 2

한성기업에서는 도훈을 이용하여 윤홍식을 제거하기로 한다. 도훈에게 회사의 성과금과 포상이라는 명목으로 아버지께 차를 선물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도훈은 차를 받아 아버지 몰래 고향인 청주로가 선물하고 메시지 하나를 남기고 돌아온다. 윤홍식은 아들의 편지를 받고 차를 이용하게 되고 한성기업은 협상을 하겠다고 하여 윤홍식을 불러내고 무심천 변에서 갑작스런 차량 고장을 위장하여 살해한다.

#50 삼성 병원

윤홍식의 사망 소식을 듣고 도훈은 병원으로 가지만 이미 윤홍식은 죽은 후였고 충실한 부하 현수에 의해 이 모든 계획이 한성기업으로 부터였고 자신이 하던 일이 모두 아버지의 죽음을 부추기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이 선물한 차량이 고장 나서 사고가 난 것을 알아차리고 대성통곡한다. 평소 존경하던 윤홍식의 죽음에 소회도 귀국하여 빈소에 찾아가며 가족들을 위로하며 도훈을 만난다. 도훈은 소회에게 나가라고 소리친다. 직지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나를 괴롭히고 내 인생을 망치는 것이냐며 울며 말한다.

#51 청주 시내 카페

소회는 계속 도훈에게 만나자고 하지만 도훈은 거절한다. 하지만 소회는 아버지 일로 이야기 할 것이 있다고 하며 도훈을 불러낸다. 도훈을 위로하며 소회는 그 동안의 일을 이야기해준다. “사실 직지는 임진왜란 때 일본이 강탈하려 했어. 임진왜란 때 일본은 도자기를 비롯한 조선의 문화유산과 유물을 강탈하여 자국의 이익을 취하려 했고 그것을 막기 위해 너의 조상인 윤경식님께서 직지를 지켰어. 그 후 아버님을 비롯한 너의 집안은 계속하여 직지를 연구하는 집안이었어. 이 이야기는 아버님께서 살아생전에 이야기 해주신 것이야.” 도훈은 “거짓말 하지 마.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그런 사실을 왜 너한테만 이야기 한 건데?” 소회는 “그건 네가 직지에 대해 억지로 관심을 갖게 하기 싫으셨던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너도 그것을 알기를 바라신거야.” 도훈은 “난 네가 어떤 말을 해도 믿지 않을 거야! 넌 나를 버리고

간 사람이고 넌 너밖에 모르는 이기적이고 잔인한 사람이야!”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정말!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난 할 말이 없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었어.” 도훈은 “그럼 내가 납득 할 수 있도록 변명이라도 해봐! 이 나쁜 계집애야!” 소희는 윤홍식의 유품을 전해주며 “이건 아버님 유품이야. 사실 너 수능 준비 할 때 난 매일 너를 생각하며 편지를 써서 아버님께 보냈어. 그리고 아버님은 공부에 방해 될까봐 보관하시다가 주시려고 했던 거야.” 도훈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본다. 소희는 “그 다음 편지는 내가 프랑스에서도 너에게 매일 쓴 거야. 하지만 네가 그때 서울로 가서 전해 받지 못한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의 유품에는 수많은 편지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편지가 있었다. 그 편지에는 이 모든 사실과 직지를 계속 연구해 줄 것을 당부하며 마지막으로 사랑한다는 말이 쓰여 있었다. 도훈과 소희는 눈물을 흘리며 서로의 오해를 풀고 다시 밤을 지새운다.

#52 현수의 죽음과 소희의 납치

도훈은 아버지를 죽이고 온갖 불법을 저지른 한성기업을 무너트리기 위해 자료를 모으고 자신이 중추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직지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한성기업은 알고 있었고 도훈을 제거하기 위한 계획을 짜고 소희를 납치하기로 한다. 이런 사실을 안 현수는 도훈에게 알리고 현수는 배신한 대가로 목숨을 잃는다. 도훈은 현수의 도움으로 소희의 납치를 막고 함께 프랑스로 떠나기로 한다. 도훈은 현수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며 프랑스로 간다.

#53 2013년 1월 13일 결혼식과 자료수집

3년 후 2013년 1월 13일 프랑스에서 도훈과 소희는 둘만의 결혼식을 올리고 한성기업의 눈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다. 소희는 직지를 계속하여 연구하고 알리는데 집중한다. 도훈은 조직을 배신한 낙인을 벗기 위해 노력하면서 계속하여 한성기업의 자료를 모으는데 집중한다. 그리고 한성기업의 라이벌 한국계 기업인 AHP기업의 사장 신도식은 윤홍식과의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고 평소에도 직지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라 도훈을 돕는다. 신도식의 도움을 받아 도훈은 계속하여 자료를 수집한다.

#54 2015년 대한민국 학자 윤희석

2015년 도훈과 소희는 프랑스에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고향인 청주를 방문하는데 그곳에서 윤홍식의 편지 하나를 더 발견하고 학자 윤희석을 찾아간다. 그 윤희석은 윤홍식의 친구이자 같이 직지를 연구하던 학자였으나 한성기업의 방해로 결국 친구를 팔고 혼자 살아남은 친구였다. 도훈과 소희는

윤희석의 거절에도 며칠을 찾아가 사정하며 윤희석의 편지만이라도 읽어달라고 부탁한다. 결국에 윤희석은 편지만 보겠다고 허락하고 이 편지에는 윤희석이 친구에게 쓰는 편지였고 그 내용에는 항상 친구를 믿는 다는 내용과 내가 먼저 죽어도 자신의 아들을 부탁하며 수집한 자료를 맡긴다는 내용이었다. 윤희석은 눈물을 흘리며 결국 모든 자료를 주며 도훈을 돕게 된다. 특히 윤희석의 자료 중에는 <직지>의 사라진 상권의 진품이 있어 도훈과 소희를 놀라게 하며 그 사라진 상권에는 <직지>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프랑스와 한성기업의 비리와 은폐한 자료가 함께 있다.

#55 2015년 7월 10일 기자회견.

2015년 7월 10일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한성기업의 만행을 알리려고 한다. 이에 한성기업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막으려고 하고 기자들을 매수하여 기자회견에 기자들을 출입하지 못하게 한다. 하지만 AHP기업은 자사의 기자들을 동원하여 기사를 쓰게 하고 기자회견을 연다. 이 기자회견은 신도식의 도움으로 프랑스의 뉴스까지 소개가 되고 한성기업의 만행이 온 세상에 알려진다.

#56 2015년 7월 15일 뉴스

뉴스에는 한성기업의 회장 황태희가 기자들이 둘러싸인 채 검사실로 들어가는 모습과 함께 구속되었음을 알린다. 그 다음 뉴스로 프랑스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일을 사과하며 <직지>를 바로 반환하겠다는 발표를 한다.

#57 2015년 12월 청와대

윤도훈과 민소희 그리고 신도식은 대통령에 만찬에 초대되고 대통령은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그리고 반환 된 <직지> 그리고 또 하나의 <직지>가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한 채 클로즈업 되면서 마무리 된다.